

국보·보물 무색한 '부실 관리'

감사원, 15일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감사 결과

감사원의 문화재 실태 감사결과 국보급 문화재 대부분이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월 15일 공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예산 배분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가 시급함에도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반면, 문화재 주변 전시장 건립, 화장실 개축 등 주변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문화재 보수 예산의 22.9%인 908억원이 문화재 보수에 쓰인 반면 51.7%인 2053억 원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쓰였다.

이 중 2008~2013년 문화재청 정기조사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 117건(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수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변정비사업은 진행됐다.

실제로 보물 1211호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2010년 조사에서 곱팡이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됐지만 지자체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의 야마당 등 주변 정비사업에는 12억 원이 지원됐다.

**보수 필요 문화재 조치 대신 주변 정비
시공업체 수의계약 후 부담 전가하기도
건조물 문화재 3.6%만 안전 점검 실시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 찬물 우려**

일부 문화재 보수사업에서는 시공업체를 수의계약하며 업체가 부담 등을 전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순천 모 사찰의 경우 총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대응전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수의계약을 한 시공업체에 사찰 측 자부담금인 2억 6400만원을 전가시켰다. 2008년 진행된 공주 모 유물전

시판 정비공사에서도 총 53억 여원의 사업 계약 중 자부담 9억 8200만 원을 시공업체가 부담했다. 이러한 자부담 전가는 보수 시공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수 시공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 기술자들이 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보수 현장을 무단이 탈한 사례도 밝혀졌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에 대

했고,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 매년 특히 목조문화재의 경우 공주 마곡사 영산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은 고장난 방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대응 매뉴얼 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원의 문화재 감사는 여러모로 불교계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문화재청과 산하 단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최다 문화재 보유 단체인 사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회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꾸준히 진행해 온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갈 것"이라며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 제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7대 종교지도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종교 지도자들 "공명선거 실현하자"

5월 12일 호소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촉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종교지도자들이 공명선거를 촉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자승, 이하 종지협)는 5월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자승 스님은 "모두가 밝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민주사회의 바탕이 되어주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을 주는 선거가 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나라의 기본이 바로 서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투표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 사전투표제도 도입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자연·혈연·학연 등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투표하자"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보다 나은 삶의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명선거가 실현 되도록 중립을 지키고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기표마크를 함께 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 선거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종지협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기록만 있던 고려대장경 '밀교대장' 발견

박광현 前 학예사, 호림미술관 소장품서 찾아내

기록만 있고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고려대장경, '밀교대장' (密敎大藏)이 발견됐다.

박광현 前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사(경북대 대학원)는 5월 1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2014 한국 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호림박물관 소장품 중에 밀교대장 권61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연구·분석 성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밀교대장은 총 2종으로, 2008년 남권희(서지학) 경북대 교수도 서울 수국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 중에 밀교대장 권9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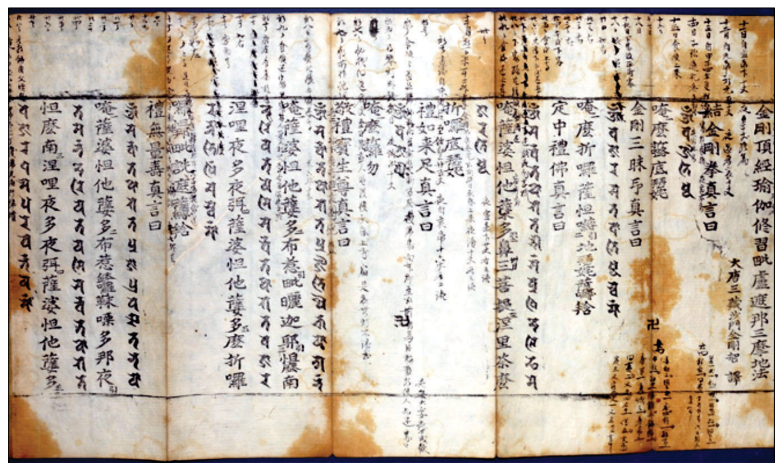
박 前 학예사가 발견한 밀교대장은 경전에서 보이는 신비의 주문인 다라니만을 떼어낸 것으로 권61은 1장에 30행 15~16글자로 돼 있다. 책 이름은 '밀교대장 권61(密敎大藏卷六十

一)'이라고 하고, 제목 아래 '반(滿)'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현재 남은 장수는 17장. 전체 1~21장 중에 제15~18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졌다. 표지는 감청색이 도는 감지(紺紙)로 만들었다. 또, 은니(銀泥·은가루)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밀교대

**서지학회 춘계대회서 발표
고려末 13세기 제작 추정
수국사 발견 이후 첫 성과**

장 권61'이라고 적었다.

박 前 학예사는 "보상화 문양으로 표지를 장식한 고려시대 일반 사경(寫經)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를 없애고 감지에 책 이름만 기입했다"며 "고려말 13~14세기 목판본을 절첩(접는 구조)으로 장정할 때 흔히 보이는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박광현 前 호림박물관 학예사가 5월 16일 한국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고려대장경 밀교대장 권61.

또, 책 끝머리에는 '산원 김청각(散員金淸刻)'이라고 해서 산원이라는 관직을 가진 김청이라는 사람이 목판에 새겼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박 前 학예사는 "밀교대장 권61이 간행된 시기는 권말에 나타난 각수인 '산원 김청' (散員金淸)이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

을 잡은 김준(金俊)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김준 정권에서 판각됐을 것"이라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원종 즉위년인 1259년에서 김청이 낭장(郎將·고려시대 무관직)이 되기 전인 1265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전국 100여 선원·2400여 수좌 하안거 결제

13일부터 3개월 정진... 재가 시민 선방도 수행

불기 2558년 갑오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5월 13일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선원에서 입제식이 봉행됐다.

올해 하안거에도 24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100여개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간 정진한다. 또한 전국 시민선방에서도 재가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참선수행을 한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13일 팔

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하안거 결제 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혼신을 다해 화두의심을 행기다보면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서 "사부대중은 각자 자리에서 자기사(自己事)를 마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설했다.

하안거는 결제 하루 전날인 12일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3일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 스님 등을 모시고 결제 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하안거 결제를, 음력 10월15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동안거 결제를 한다.

신성민 기자

중정·방장 법어 8면

993호 INDEX

시방세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태고 템플스테이	5	종합 조계종 근대불교문화연혁사업 본격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소송 각하 "사찰 규제 해소해야 전통문화 발전" 총지중, 강남에 명상 힐링센터 건립	2·3	신행 인터넷 금강가게 오프라인화 '활발'	6
				출판 대행 선사 영어 법문집 출간	23
				불교로 읽는 고전 몽테뉴 〈수상록〉- 맹난자 수필가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께 이루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모두 밝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치러져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가 실현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둘째, 자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합니다.

셋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 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도록 합니다.

둘째,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을 배격 합니다.

셋째, 선거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 돈 선거, 불법 사조직, 공무원 선거범죄 등을 반드시 근절 시킵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공명선거로 만들어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5. 12.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공동 대표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 대표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동 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동 대표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공동 대표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공동 대표	박남수 (천도교 교령)
공동 대표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